

위치에 따른 어미 분류 체계의 정립과 그 문제*

이 정택 (서울여자대학교)

차례

1. 들어가기
2. 체계의 성립
3. 체계의 공인
4. 문제와 해결 방안
5. 맺음말

1. 들어가기

용언을 불변부인 ‘어간’과 가변부인 ‘어미’로 분석하고 ‘어미’를 다시 그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다시 나누는 체계는 오늘날 우리 문법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국정의 문법교과서에서도 채택됨으로써 공인된 분석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공인되기까지는 선구적인 문법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용언을 이처럼 분석하는 오늘날의 체계가 언제 태동하고 어떻게 변화 발전한 것인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마지막으로 현행 체계가 갖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2. 체계의 성립

다양한 활용을 하는 용언들을 보는 오늘날의 시각이 비로소 정립된 것은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1984)’에 와서이다. 아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이전의 문법서들과 달리 불변부인 ‘씨줄기(어간)’에 가변부인 ‘씨끝(어미)’이 다양하게 어우러짐으로써 풀이씨(용언)를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고 활용하는 하나의 단어로 파악하였다.

풀이씨의 끝이, 그 쓰히는 본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꾸히는 조각(部分)을 씨끝, 줄여서 끝(語尾, Termination, Endung)이라하며, 그 바꾸히지 아니하는 조각을 씨줄기, 줄여서 줄기(語幹, Stamm, Stem)라 일컫느니라.

위에 든 보기로써 보면,
 붙다, 붙게, 붙은, 붙음.
 먹다, 먹게, 먹는, 먹지마는.
 보다, 보게, 보는, 보더라도

의 “붙, 먹, 보”는 바꾸히지 아니하나니, 이를 씨줄기 또는 줄여서 줄기(語幹)라 하며, “다, 는다, 게, 은, 는, 음, 지마는, 더라도”는 바꾸히는 조각이니, 이를 씨끝 또는 줄여서 끝(語尾)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줄기(語幹)는 그 씨의 바탕스런 뜻(실질적 의미)을 대표하여, 정적(靜的) 상태를 가지는(취하는) 고정 부분(固定部分)이요: 씨끝(語尾)은 그 씨의 말본스런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 의미(꼴재스런 뜻)를 대표하여, 종적(動的) 상태를 가지는 활용 부분(活用部分)이니라.[우리말본 : 163쪽]

‘우리말본’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혁명적인 발상이고 시도였다. 그리고 용언을 보는 이러한 시각의 근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본’은 아래와 같이 이른바 ‘도움줄기(보조언간)’을 설정

하고 있어 오늘날과는 일부 다른 관점을 보여 준다.

풀이씨의 줄기는 단일한 중심 관념을 나타내는 씨 몸만으로 되는 것이 그 으뜸꼴(基本形, 原形)이지마는; 그 자세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중심 관념을 돕는 조각(뒷가지, 接尾辭)을 거기에다가 덧붙이나니(이는 우리말이 덧붙는 말-添加語-인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됨): 이 씨몸에 덧붙어서 복잡한 줄기를 이루는 조각(部分)을 도움줄기(補助語幹)라 이르느니라.

이에, 도움줄기의 보기를 들면,

먹인다.

먹히다.

사되올나이다.

그러하오니.

사랑하신다.

술잔을 잡으신다.

의 “이, 히, 읊, 오, 시, 으시”들과 같으니라.

[우리말본 : 165쪽]

이처럼 ‘우리말본’에서는 용언을 크게 어간과 어미로 분석하면서도 때로는 접미사들이 추가적으로 이들 어간과 어미 사이에 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 접미사들을 ‘도움줄기(보조어간)’라 부름으로써 이들이 불변부인 어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용언을 보는 ‘우리말본’의 이러한 관점 즉 용언을 씨줄기(어간)와 도움줄기(보조어간) 그리고 씨끝(어미)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이후 국내 문법서들의 한 표준이 됨으로써 이후 간행되는 대다수의 문법서들이 이러한 체계를 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보조어간(도움줄기)이라고 하는 형태소들 중 사동(하임), 피동(입음), 강세(힘춤)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굴절 형태소들이었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용언의 불변부와 가변부로 보는 체계 안에서, 이들은 불변부인 어간(줄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가변부, 즉 어미(씨끝)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말본의 체계는 문제를 갖는다.

안병희(1959)는 E. Nida(1949)에 기초하여 이른바 ‘보조어간’들을 아래와 같이 파생과 굴절접미사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불변부어간과 가변부어미에 나누어 귀속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어간, 어미 개념에 이르게 된다.

야킨대 문제는 終尾部에 서지 않는 形態素 “-ㄴ-, -더-, -시-, -습-, -ㅣ-, etc.”을 語幹, 語尾 어느 것에 歸屬시키느냐에 있다. 그것은 이들을 記述함에 있어서 inflectional(活用的) 한 것으로 處理하느냐 derivational(派生的)한 것으로 處理하느냐에 歸結된다. 만약 inflectional한 形態素(morpheme)라 한다면 이들은 語尾에 歸屬되지만 derivational한 形態素(morpheme)라 한다면 語幹에 歸屬되는 것이다. 그런데 本論에서는 (a) (b) (c) --- 系列과 (a') (b') (c') --- 系列에서의 “-ㄴ-, -더-, -시- ---”는 inflectional한 것으로 다루고 (a') (b') --- 系列의 ‘-ㅣ-’는 derivational한 것으로 다루어서 語幹의 一部分으로 다루고자 한다. 前者의 “-ㄴ-, -더-, ---”는 形態論的인 目錄作成(morphological listing)이 簡單하며 共通性이 있고 廣範한 分布를 가지기 때문에 單一形態素(혹은 여러 形態素)로 된 語幹이면 다 連結될 수 있다. 그러나 後者の “-ㅣ-”는 形態論的인 目錄作成이 複雜하며 共通性이 없고 매우 制限된 分布를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語幹이든지 이 “-ㅣ-”는 連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병희(1959) : 7쪽]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1984)’이 우리말 용언의 활용 양상을 인지하고 이를 가변부와 불변부인 어간과 어미로 나눈 최초의 연구라면 안병희(1959)는 이 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수정한 연구물임에 분명하다.

오늘날의 문법연구물과 문법연구서들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체계는 안병희(1959)의 바탕 위에서 우리말 어미를 재분류한 고영근(1965)와 고영근(1967)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고영근(1965)에서 비롯된 이러한 분류법은 고영근(1967)에 와서 그 내용이 정비되었다. 고영근(1967)에서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用言 構造體를 語幹과 語尾의 두 部分으로 나누는 基準은 派生法(derivation)과 屈折法이다. 派生法에 依存하는 接尾辭들은 接尾되는 語根의 數 갓가 制限되어 있으며, 그 意義 또한 內的 곧 語彙의임에 對하여 屈折法에 依存하는 語尾들은 語幹의 種類에 制限 받음이 없이 두루 붙으며, 그 意味는 恒 常 外的 곧 文法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派生法의 接尾辭들은 造語論의 所 管이요, 屈折法의 語尾들은 活用論의 所管인 것이다.(중략)

이상에서 析出한 語尾構造體는 單語의 끝에 쓰이는 語末語尾(final ending)와 中間에 쓰이는 先語末語尾(prefinal ending)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基準을 말하면, 語末語尾는 그 다음에 다른 語尾가 오지 않아도 單語를 形成할 수 있는 閉鎖形態素(closing morpheme)임에 反하여 先語末語尾는 다음에 반드시 語末語尾를 要求하는 開放形態素(nonclosing morpheme)인 點이다.

[고영근(1967) : 52쪽]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영근(1967)은 용언은 어간과 어미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한 용언에 포함되는 접미사들은 그 기능이 파생과 굴절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각각 어간과 어미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용언과 그 구성요소를 보는 이러한 관점은 안병희(1959)의 체계에 따른 것임에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고영근(1967)은 어미를 그 위치에 따라 재분류하여 단어의 끝에 오는 형태소를 어말어미라 하고 이에 앞서는 형태소들을 선어말어미로 지칭하였는데, 이러한 분류 방법과 용어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체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아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허 웅(1969)와 허 웅(1975)는 용언을 ‘줄기(어간)’와 ‘씨끝(어미)’으로 나누었다. 이는 ‘우리말본’ 이래 용언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물에서는 이른바 보조어간 형태소들을 안병희(1959), 고영근(1967)과 마찬가지로 어간이 아닌 어미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다.

씨끝은 한 형태소로 된 것도 있고, 여러 형태소가 겹쳐져서 된 것도 있다.(중

략)

여러 형태소로 된 것: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𪛗 업스실씩 (←없-으시-르씩) 오늘 문
쑤늬(月印 2:45)

그 金像이 世尊 보-스불-시-고 ... (月印 21:204)

(중략)

[허 웅(1969) : 92-93쪽]

씨끝의 부분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중략)

「하시며, 하시나, 업스실씩」은 각각 「하-시-며, 하-시-나, 없-으시-르씩」의
세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 없-」은 줄기이고, 그에 두 형태소로 된 씨
끝 「-시-며, -시-나, -으시-르씩」가 붙어 있다.

[허 웅(1975) : 483쪽]

또한 허 웅(1969)와 허 웅(1975)에서는 씨끝(어미)을 아래와 같이 안맺음
씨끝과 맺음씨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개념은 고영근(1967)의 선어말
어미, 어말어미와 큰 차이가 없다.

한 형태소로 된 씨끝은, 줄기에 붙어서, 한 어절을 끝맺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씨끝을 「맺음-씨끝」이라 한다. 그리고 여러 형태소로 된 씨끝 중에 마지막에
있는 형태소는 역시 어절을 끝맺어 주기 때문에 맺음-씨끝이 된다.

여러 형태소로 된 씨끝 중에, 줄기와 맺음-씨끝 사이에 있는 형태소는, 어절을
끝맺어 주지 못한다. 이를테면 「-시-, -느-, -더-」 따위는 「-하시-, -하느-, -비더-」
만으로써는 한 어절이 끝맺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씨끝을 「안맺음-씨끝」이라
한다.

[허 웅(1969) : 93쪽]

위의 말들에서 밑줄 친 풀이씨는 각각, 「길-오(←길+고), 높-고(←높+고), 곧-으
며, 이러흐-니, 곧흐-다, 돌-다가, 돌-으면, 내티-쇼셔」와 같이 줄기-씨끝으로 분
석되는데, 이 씨끝들은 모두 한 형태소로 되어 있다. 이러한 씨끝은 한 어절을
끝맺을 수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맺음씨끝」이라 한다.

[허 웅(1975) : 476쪽]

이 씨끝 형태소들 중, 끝의 「-며, -나, -르씨, -고, -라, -다」는 앞에서 설명한 맺음씨끝인데, 그 앞의 「-시-, -스봉-, -느-, -니-, -더-, -이-」따위는 이것만으로는 풀이씨를 끝맺지 못한다.(중략) 이러한 씨끝 형태소를 「안맺음씨끝」이라 하는데, 한 풀이씨의 줄기와 맺음씨끝 사이에는 여러개의 안맺음씨끝이 들어 갈 수 있다.

[허 웅(1975) : 483-484쪽]

허 웅(1969)와 허 웅(1975)는 우리말 문법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연구물들이다. 이들이 고영근(1967)의 체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의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의 분류 체계가 확고히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3. 체계의 공인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가 갖는 파급력은 실로 지대하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다수의 사람들 그것도 장래 나라의 근간이 될 2세들에게 전달되는 교육내용을 담은 교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교재이며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기에 일단 여기서 채택된 내용은 공리처럼 굳어지기 쉽다.

그런데 고영근(1967)에서 제시한 위치에 따른 어미 분류 체계는 1991년에 이르러 드디어 국정의 고등학교 문법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됨으로써 국가가 공인하는 내용으로 자리 잡는다.

(가)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활용어, 곧 용언과 서술격 조사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어간에 붙는 어미에는 단순한 것도 있고 복합적인 것도 있다.

20. (가) 설탕은 맛이 달다.

(나) 아기가 과자를 먹는다.

(다) 아버지는 조끼를 입으셨다.(입으시었다).

20-(가)의 ‘달다’의 ‘-다’는 그 앞에 다른 요소를 세우지 않은 단순한 어미다. 그러나 20-(나), (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20-(나)의 ‘먹는다’에서는 ‘-다’ 앞에 ‘-는-’이 와 있고, 20-(다)의 ‘입으셨다’에서는 ‘-시-, -었-’이 붙어 있다. 단어의 끝에 오는 ‘-다’와 같은 어미를 어말 어미(語末語尾)라 하고, 이에 앞서는 ‘-는-, -시-, -었-’과 같은 어미를 선어말 어미(先語末語尾)라 한다. 어말 어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간에 붙어 단어를 이룰 수 있으나,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문법(국정, 1991) : 33쪽]

위 인용문 앞머리에 “어간에 붙는 어미에는 단순한 것도 있고 복합적인 것도 있다”라는 설명이 있다. 이는 어미가 한 형태소로 구성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복수 형태소를 가지는 용언의 가변부 즉 안병희(1959), 고영근(1967) 및 허웅(1969)을 따르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어미를 이루는 형태소들을 다시 그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누어 지칭하고 있으므로, 1991년 판 국정 문법교과서는 이런 점에서 고영근(1967)과 동일한 체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판 국정 문법교과서의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은 이후 ‘우리말본’으로 대표되는 ‘어간-보조어간-어미’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또 하나의 절대적인 어미 체계가 되어 이후의 문법 연구물과 문법서들의 한 표본이 된다.

2002년에는 새로운 국정의 문법교과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문법교과서 역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영근(1967) 체계에 기반을 둔 1991년 판 국정 문법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다. 2002년 판 국정 문법교과서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체계를 오늘날의 국가 공인의 체계로 재확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국어 용언의 특징은 문장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을 어간(語幹)이라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語尾)라고 한다. ‘가고, 가면, 가니, 간’에서 보듯이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活用)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들을 ‘가다’의 활용형이라고 한다.(중략)

우리말에는 어미가 발달되어 있는데, 헤아리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500개 이상이 된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어미(語末語尾)와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간다. 어말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다.[고등학교 문법(국정, 2002) : 101-102쪽]

4. 문제와 개선 방향

앞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용언을 어간과 어미로 나누고 어미를 다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구분하는 체계는 현재 거의 모든 문법연구자들과 현장 교사들이 따르고 있는 지배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다수의 선구적 문법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위 체계는 몇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갖는다.

우선 전통적인 용어 ‘어미’와 이를 구성하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어미’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말본’ 이후의 연구물들인 안병희(1959), 고영근(1967) 그리고 허

웅(1969), 허 웅(1975) 등과 1991년 판 국정의 문법교과서는 이미 관찰한 것처럼 용언의 가변부 전체를 지칭하는 전통적 ‘어미’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변부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지칭함으로써 전체 어미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역시 ‘어미’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어미’는 불변부인 어간과 대립하는 전통적 의미인 가변부 전체라는 뜻과 더불어 이를 구성하는 형태소라는 의미 또한 지니게 됨으로써 다의어가 되고 만다.

수많은 의미를 제한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언어의 속성상 한 형식이 둘 이상의 의미와 짝을 이루는 동음이의어 혹은 다의어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표현들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학술적인 표현들은 일상적인 언어사용보다 더욱 엄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훌륭한 생각을 기초로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엄정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포함하는 학술논문이나 저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특히 학문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나 갓 입문한 초학자들에게는 보다 엄정하고 뚜렷한 의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의 문법교과서와 학문세계에 입문하는 초학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문법서들이 다의적 학술용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에 간행된 문법교과서 역시 어미를 그 위치에 따라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누고 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다수형태소를 가진 어미 즉 용언의 가변부 전체를 뜻하는 어미에 대한 언급을 이 책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설명 이후에 그려져 있는 도표들에서도 가변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 즉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쩌면 이 책의 내용은 고영근(1967), 허 웅(1969) 및 1991년 판 문법교과서 체계가 갖는 ‘어미’의 다의성 문제를 인식하고 이

를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소가 결합한 복합 어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어미’는 가변부 전체를 뜻해왔고, 현재도 문법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미’가 갖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를 기억하고 또 인정한다는 점이다.¹⁾ 따라서 이런 전통적 의미를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한 ‘어미’가 갖는 다의성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어미’를 단일한 의미 즉 가변부 구성의 개별 형태소들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다의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용어법이 균형을 잃게 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왜냐하면 ‘어미’라는 용어 자체가 ‘어간’과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변부인 용언 어간은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될 수도 있고 둘 혹은 그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아는 한 국내의 모든 문법서에서 두루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어간에 대립되는 개념인 어미가 가변부 전체를 이루는 개개의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용어법상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어간이 불변부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면 어미는 가변부 전체를 가리킬 때 균형이 맞는 용어법이 될 것이다.²⁾

둘째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용어 자체가 내부적인 모순이나

1) 현재도 널리 읽히고 있는 남기심 · 고영근(1993)에서는 ‘푸르다’의 ‘-다’는 단순한 어미이고 ‘매시었다’의 ‘-시었다’는 복잡한 어미라고 했으며, 최근 새로 간행된 고영근(2010)에서는 ‘죽다’의 ‘-다’를 단순한 어미, ‘보습느니이다’의 ‘-습느니이다’를 복잡한 어미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이들 문법서가 용언의 불변부 전체를 ‘어미’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굴절하는 개별형태소를 현재대로 ‘어미’라 부르고 이들이 어울린 전체 구성을 ‘어미’와 구별해 고영근(1967)에서와 같이 ‘어미구조체’로 부를 수도 있다. 또 어간은 ‘어간구조체’ 등으로 이름 지어 그 균형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의성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용어 자체에 모순과 의미중복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용어법이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대로 ‘어간’과 ‘어미’를 사용하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미중복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어미(語尾)’라는 용어는 단어의 마지막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따라서 어간에 어미가 이어지면 단어는 끝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선어말어미’는 그 정의 자체가 단어를 끝맺지 못하는 개방 형태소를 의미하므로 이 용어는 내부적으로 명백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어말어미’는 단어를 끝맺는 어미이므로 ‘선어말어미’에서 발견되는 모순을 내포하지 않는 대신 명백한 의미중복 현상을 드러낸다. 즉 ‘어미’가 이미 단어의 끝을 뜻하는데 여기에 다시 단어의 끝을 의미하는 ‘어말’이라는 한정어가 붙음으로써 의미중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역시 학술용어의 선정과 사용에서는 피해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언의 가변부 전체를 의미하는 ‘어미’를 그 위치에 따라 다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분류하는 데 따르는 문제들을 살펴해보았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먼저 다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미’가 갖는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가변부 전체를 뜻하는 ‘어미’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이를 이루는 개별 형태소를 가리키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를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는 중의성이 아니더라도 그 용어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어미’라는 용어 자체가 본래 어간과 대립되는 개념이므로 균형 잡힌 용어 사용을 위해서도 가변부 전체를 뜻하는 ‘어미’를 살려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우리는 용언의 어미 체계 변화 과정 중 안병희(1959)와 고영근(1967)의 어간, 어미 체계로 일단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용언 어간에 계기적으로 이어지는 굴절 접사들이므로 ‘굴절 접사’라는 기존 용어를 살려 사용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선어말’과 ‘어말’은 각각 개방과 폐쇄 형태소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개방’과 ‘폐쇄’라는 기존 개념도 함께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굴절 접사와 개방 및 폐쇄라는 용어들을 혼합해 선어말어미는 ‘개방굴절접사’로 부르고 어말어미는 ‘폐쇄굴절접사’로 칭한다면, ‘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의 삼분법에 따르는 다의성이나 모순도 피할 수 있고 기존에 용어를 살려 쓰는 것이니 만큼 새로운 용어 도입에 따르는 부담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용언의 활용뿐 아니라 체언과 조사의 결합도 일종의 굴절로 파악하고 체언의 변화와 구분되는 용어만을 위한 용어법을 원한다면 굴절이란 말 대신에 ‘활용’이란 표현을 넣어 ‘폐쇄활용접사’와 ‘개방활용접사’와 같이 조합해 사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어말어미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구분하고 비종결어미를 다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누는 하위 분류에 따르는 용어들도 ‘접사’라는 말과 각 어미가 갖는 대표적 속성들을 조합해 적절히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 될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문법용어가 보다 엄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 기존 용어법 중 활용어미와 관련된 ‘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의 체계는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어미’라는 용어가 갖는 다의성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술용어의 다의적 속성은 많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용어법은 용어들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 및 의미중복이라는 문제도 지니고 있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리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학술용어가 엄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런 분류나 용어 법상의 문제들이 문법을 처음 배우는 중등학교 학생들이나 우리말 문법 학이라는 학문 세계에 처음 발을 내딛는 초학자들에게는 큰 장애가 될 수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미’는 어간의 대립개념으로서 용언의 가변부 전체를 가리키는 데에만 사용할 것을 제한했다. 그리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라는 용어들은 과감히 버리고 굴절(혹은 활용) 접사와 개방 및 폐쇄라는 기존 용어들을 적절히 조합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한해 보았다.

핵심어 : 용언, 어간, 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참고 문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고등학교 문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 : (주)두산.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선어말어미의 것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5.
 고영근(1967), “현대국어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3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1-63.
 고영근(1985), 『국어학연구사-흐름과 동향』, 서울 : 학연사.
 고영근(1985), 『국어학연구사-흐름과 동향』, 서울 : 학연사.
 고영근(201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서울 : 집문당.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서울 : 일조각.
 김석득(1983), 『우리말연구사』 서울 : 정음문화사.
 안병희(1959), “십오세기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왕문용 · 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서울 : 개문사.

최현배(1937-1984), 『우리말본』, 서울 : 정음문화사.

허 응(1969), 『옛말본』, 서울 : 과학사.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서울 : 샘문화사.

E. Nida(1949), *Morpholog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3

전화: 02-970-5417, 010-3244-5417

전자우편 : jtleee@swu.ac.kr

투고일: 2010.11.17.

심사일: 2010.12.1.~12.14.

게재 결정: 2010.12.16.

Abstract**Pre-final and Final Endings Based on Their Distribution in Korean**

Lee Jungtag

(Seoul Women's University)

Contemporary system of dividing a verb ending into a final ending and some pre-final ending(s) has been developed from Choi Hyunbae (1937-1984) by several smart Korean grammarians.

But this system still has some problems. First of all, the polysemy of the term 'ending' is the worst one. Namely it can mean both the whole changing part of verb and the constituent morpheme of it. The problems of contradiction and semantic duplication can be found in the terms, namely 'pre-final ending' and 'final ending'.

So I propose that we would use the term 'ending' only when we refer to the whole changing part and change the two terms for new ones which include inflectional suffix and closing or non-closing.

Key words : Verb, Stem, Ending, Pre-final ending, Final ending